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12 월 FOMC 50bp 금리인상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일(화) 미국 증시는 12월 50bp 인상을 주장한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10월 CPI 컨센 상회, 젠슨황 스캔들 파장에 따른 엔비디아(-5.5%) 약세 지속 등으로 장 중반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연내 50bp 인상 과도 인식 속 AI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미국의 10월 CPI는 전월비(MoM) 기준으로 헤드라인(0.4% vs 컨센 0.3%), 근원(0.3% vs 컨센 0.2%)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에너지 물가(9월 +5.2% -〉 10월 +0.7%)가 하락했지만, 식료품(+0.5%), 자동차 보험료(+0.7%), 교통비(+0.8%) 등 여타 품목 물가가 높아진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비스 전반으로 전이되는 모습.

더군다나 월러 이사가 12월 50bp(빅스텝)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10월 근원 CPI가 +0.3%(MoM) 이상"을 제시했으며,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 그 여파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8%대에서 5.0% 부근까지 상승하는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재차 점증하고 있는 실정.

12월 FOMC(8~9일)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CPI 지표(11월 CPI는 12월 10일 발표)였기에 시장은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으나, 12월 50bp 인상은 소수 의견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 Fed Watch상 12월 50bp 인상 확률은 11%에 불과한 가운데, 전일 댈러스 연은 총재, 연준 부의장 등 다른 연준 인사들 모두 50bp 인상을 명시적으로 지지 하지 않았기 때문. 연준 내부적으로 50bp 인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미국 내 에너지, 서비스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확산을 유발했던 국제 유가도 한 때 100달러를 상회했다가 최근 미-이란 협상 기대감으로 80달러대 중반까지 레벨 다운이 된 점도 주목할 부분. 추후 12월 FOMC 전에 예정된 여타 주요 연준 인사들의 톤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12월 50bp 인상 -〉 미국 시장 금리 급등 -〉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 빅테크 업체들 자금 조달 리스크 추가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현실화 확률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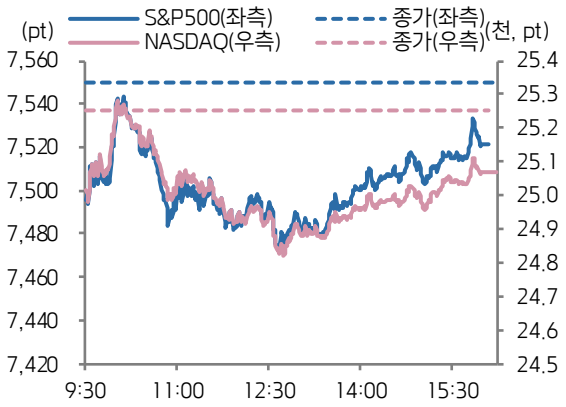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이란 휴전 기대감에 따른 유가 약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등 소식, 최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4%대 강세 마감(코스피 +4.4%, 코스닥 +4.5%).

금일에는 미국 10월 CPI 컨센 상회에 따른 미 10년물 금리 상승, 대중 수출 통제 우려와 같은 젠슨황발 엔비디아 노이즈 여파로 전일 4%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 다만, 전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 중 -2%대에서 -0.4%대로 낙폭을 축소하는 등 미 10월 CPI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국내 증시 역시 장중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코어위브(-0.5%)의 3분기 매출액(36.6억달러 vs 컨센 35억달러) 및 연간 가이던스(131.5억달러 vs 컨센 129억달러)가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주잔고(2분기 1,040억달러 -> 3분기 1,325억달러)도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 물론 순 이자비용 상승, CAPEX 상향 등 부담 요인도 공존하고 있다 보니, 현재 시간외 주가가 +6%대에서 -2%대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본장에서 주가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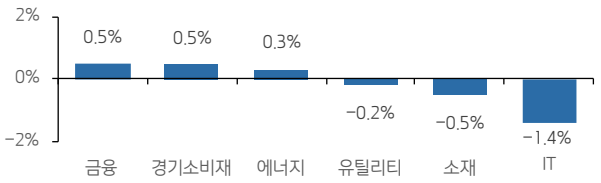
한편, 코스피 거래대금은 15조원대로 11월 이후 평균 거래대금(19조원)을 하회 중이며, 연중 100조원대를 지속 상회했던 고객 예탁금도 88조원까지 내려왔음을 감안 시, 아직 시장 전반의 매수 여력이 정상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최근 극심한 주가 조정 속에서도 이익 전망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11월 이후 -13.0%), IT 하드웨어(-24.7%), 기계(-9.8%), IT가전(-11.5%) 등 주력업종들이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면, 추후에도 주가 복원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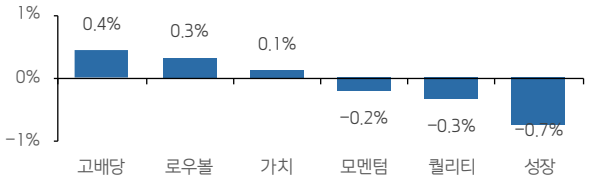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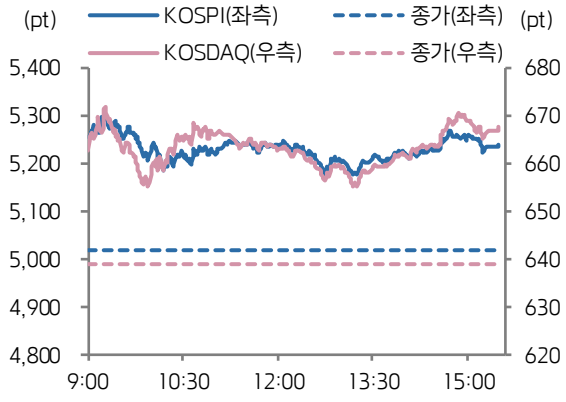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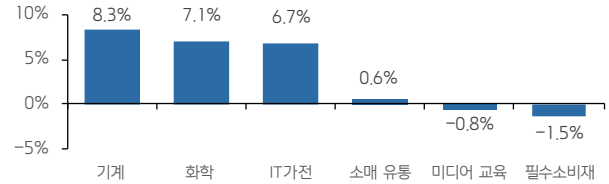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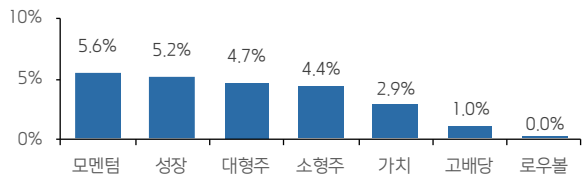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48.51	-0.62%	+28.19%	GM	88.69	-1.07%	+9.06%
마이크로소프트	533.16	-2.2%	+10.24%	일라이릴리	1,432.29	+1.44%	+33.28%
알파벳	287.38	-0.27%	-8.19%	월마트	125.55	-0.09%	+12.69%
메타	641.39	+0%	-2.83%	JP모건	342.07	+0%	+6.16%
아마존	270.87	+1.48%	+17.35%	엑손모빌	164.47	-0.16%	+36.67%
테슬라	379.78	+0.46%	-15.55%	셰브론	211.22	+0.21%	+38.59%
엔비디아	168.89	-5.47%	-9.44%	제너럴일릭트릭	125.55	-0.1%	+12.7%
브로드컴	331.98	+3.91%	-4.08%	캐터필러	584.57	-2.39%	+2.04%
AMD	515.21	+1.3%	+140.57%	보잉	173.38	+0.58%	-20.15%
마이크론	725.11	-1.1%	+154.06%	넥스트에라	86.27	-0.7%	+7.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239.13	+4.39%	+24.32%	USD/KRW	1,343.50	+0.16%	-6.67%
코스피200	814.31	+4.62%	+34.38%	달러 지수	102.24	+0.58%	+3.99%
코스닥	667.61	+4.48%	-27.86%	EUR/USD	1.12	-0.53%	-4.95%
코스닥150	1,088.85	+5.23%	-29.63%	USD/CNH	6.68	+0.11%	-4.29%
S&P500	7,520.93	-0.38%	+9.87%	USD/JPY	158.75	+0.53%	+1.3%
NASDAQ	25,065.88	-0.74%	+7.85%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231.89	-0.3%	+8.67%	국고채 3년	3.627	-0.8bp	+67.6bp
VIX	19.46	-2.31%	+30.17%	국고채 10년	3.850	-0.7bp	+46.5bp
러셀2000	2,821.38	-0.68%	+13.68%	미국 국채 2년	4.738	+17.6bp	+126.5bp
필라. 반도체	9,998.33	-0.35%	+41.16%	미국 국채 10년	4.990	+10.8bp	+82.3bp
다우 운송	20,416.58	+0.1%	+17.63%	미국 국채 30년	5.352	+7.4bp	+50.9bp
상해종합	3,663.72	+0.08%	-7.69%	독일 국채 10년	3.319	+5.5bp	+46.4bp
항셍 H	8,265.81	+0.07%	-7.2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106.65	+0.13%	-4.83%	WTI	86.04	-0.93%	+51.1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1.49	-1.17%	+50.35%
Eurostoxx50	6,327.87	+0.59%	+9.26%	금	4,030.20	-2.05%	-10.39%
MSCI 전세계 지수	1,108.96	+2.16%	+9.3%	은	51.23	-2.79%	-27.45%
MSCI DM 지수	4,846.38	+2.25%	+9.39%	구리	623.45	-1.73%	+9.72%
MSCI EM 지수	1,524.81	+1.5%	+8.58%	BDI	2,854.00	+1.75%	+52.05%
MSCI 한국 ETF	139.18	-2.05%	+43.16%	옥수수	448.00	+1.99%	-2.7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1.50	+0.6%	+4.74%
비트코인	73,789.43	-1.53%	-15.81%	대두	1,226.75	+3.24%	+14.12%
이더리움	2,055.11	-3.41%	-30.98%	커피	265.90	-0.51%	-14.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11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